

| 제 목 | 우리 아이들은 제가 지켜요!, 안전교육의 힘! |
|--|---------------------------|
| <p>어린이집에서 19년째 근무하고 있는 [REDACTED]입니다. 매일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은 즐겁고 보람차지만, 그만큼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긴장하며 일하고 있습니다.</p> <p>저는 매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보육진흥원을 통해 이수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의무적으로 받아 왔었던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이 얼마나 중요했었는지 깨닫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고 저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공유하고자 합니다.</p> <p>한국보육진흥원의 종사자 안전교육은 (이론2시간, 실습과정2시간) 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심폐소생술(CPR), 응급처치 교육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시간의 온라인 이론 교육을 마친 후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에 대한 실습교육이 성동구청 강당에서 있었습니다.</p> <p>강사님은 심정지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CPR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이어서 CPR의 기본 절차를 배우고, 인형을 이용한 실습이 진행되었습니다. 가슴 압박의 위치와 깊이, 호흡 확인 방법 등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며, 실수할 때마다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부담과 긴장감이 있었지만, 교육이 끝날 무렵에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p> <p>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아 아는 시간이었습니다.</p> <p>2024년 교육을 받은 지 한 달이 지난 후 아찔한 상황이 제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했습니다. 어린이집 오전 자유선택놀이 시간에 2세인 규민(가명)이라는 아이가 갑자기 넘어져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장난으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진 것인지 의심했었고, 곧바로 아이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호흡이 멈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얼마 전 교육에서 배운 내용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p> <p>즉시 주변에 있는 다른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아이가 의식을 잃고 호흡이 멈춘 것을 확인한 후, 저는 교육에서 배운 대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손이 몹시 떨리고 있었지만,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p> <p>아이의 가슴 중앙에 손을 위치시키고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긴장감과</p> | |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체험수기 -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습 교육을 통해 익힌 기술이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저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교육시에 배운 응급처치 상황 대처 매뉴얼에 따라 동료 교사에게 119로 신고를 하게하고, 학부모님께 전화해서 가까이에 계시면 바로 어린이집으로 오시도록 했습니다. 저는 119 응급구조사의 전화 지시를 받으면서 아이의 상태를 알리고 심폐소생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긴장감에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얼마 후 아이의 눈동자가 또렷해지면서 의식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느껴지는 희열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이가 의식이 돌아온 후 몇 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119구급대원들이 아이를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119구급차는 아이와 엄마를 신고 어린이집에서 가장 가까운 응급센터로 이동하고, 저는 자차를 이용해서 병원으로 뒤따라가면서 어린이집 CCTV 관리운영자이신 담당 선생님에게 연락해 어떤 상황에서 아이가 쓰러졌는지 상황을 자세히 보고 전해 달라고 요청 후 아이가 쓰러질 당시 내가 놓쳤을 수도 있는 주변 현장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게 되면 아이가 쓰러진 상황을 의사 선생님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병원에 도착 후 응급실 의사 선생님에게 아이가 교구장 앞에 혼자 서 있다가 잠깐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CPR을 통해 의식이 돌아온 과정도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이 부모님께서서는 뇌경련 의심 등 뇌파 검사 등을 위해 며칠 후 다시 병원에 방문하기로 하셨다고 상황을 전달하시며 어린이집의 빠른 응급처치에 감사하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안전 교육을 받지 않았었다면 당황한 나머지 아이를 구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교육을 통해 배운 이론과 실습이 실제 상황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또한 동료 교사들과 함께 응급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강화해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공간에서 안전 교육을 통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주신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담당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때 순간이 소중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